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9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3(통23).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찬란히 빛나는 햇살만이 아니라 짙은 먹구름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계획한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우리를 붙잡히 여겨주십시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먹구름이 생명의 단비를 머금고 있듯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 속에 새로운 기쁨이 숨어 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은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의 회심 기념일입니다. 유난히도 키가 작았던 한 사람을 불러 큰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웨슬리를 불쏘시개삼아 인류에 새로운 불꽃을 일으키신 주님, 이 감리교회라는 햇불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활활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많은 영혼과 사회의 어두운 구석구석까지 환히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요14:27 인도자

♣ 교 독 문 50. 시편116편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I. 안 현 학생 II. 윤석철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242(통233).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다함께

성경봉독 I. 삼상16:1-10 박제림 학생

..... II. 욥 40:1-14 이영란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압살롬 신드롬 이성운전도사

..... II. 말이 끊어진 자리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다함께

- 찬 송 327(통361). 주님 주실 화평 다함께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 공동체 소식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쉽게 남을 탓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살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하나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가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 주위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찾는 동안 정작 내 마음이 어두워져 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깊은 침묵을 통해 마음이 밝아지고 넓어지길 소망합니다. 바른 마음을 가지고 진리의 길을 자유롭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주십시오. 아멘.

- ♠ 찬 양<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신약성서 맥잡기 / 김기석 목사	성서로 배우는 평화 / 김기석 목사
기도 : 이종현 집사	기도 : 조항미 집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조재훈 선생 방문성 장로	인도자 문홍일 집사

5월	영접위원	한완식 조문규 박규석 안정숙 진정숙 권미정
	헌금위원	방문성 정영선(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용서하는 일보다 용서를 청하는 일이 더 중요

용서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용서했다고 생각해도 제 마음이 어느 때 불쑥 용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발견하면 다시 고통스러워집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그 얼마나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인지 오로지 참담할 뿐입니다.

어쩌면 용서한다, 용서한다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을 다 보낼 것 같습니다. 용서를 한다는 게 상대방을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용서하기란 해임을 치지 못하는 제게 한강을 헤엄쳐 건너가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움은 저를 먼저 멍들게 합니다. 아니, 멍들게 한다기보다 저를 먼저 파괴시켜버립니다. 사람을 미워한다는 일이 그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길을 가다가 지하철을 타다가 갑자기 두더지처럼 불쑥 미움이 치솟아 올라 저를 괴롭힙니다.

사랑하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이 분명 사람을 미워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을 보고 자기가 건너가야 할 다리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공교롭게도 제가 미워하는 사람들은 한때 저와 친했거나 가까웠던 사람들입니다. 절친하지는 않았으나 하더라도 한때 저와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개중에는 지금도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았던 마음이 언제 무너져 미움의 싹이 텄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 작은 일에서 미움이 싹터 증오의 열매를 맺지 않았으나 싶습니다. 왜 친했던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는지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미움이란 원래 가까움과 친밀함을 먹고 싹을 틔우는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움의 원인은 대부분 저를 무시하거나 배반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적인 예의를 갖추지 않았거나 저의 자존심과 명예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거나 경제적인 손실을 입힌 일들입니다. 그중에서도 저의 인격을 무시한 일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돌이켜 보면 미움은 단순히 미움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저를 파괴하

고 제 인생을 파괴함으로써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 인생을 바꾸어버리는 일입니다.

제 생각에는 용서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용서하게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잊을 수 있게는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구체적인 사건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 희미해집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미워했더라?’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감정의 격렬함은 멀어지고 감정의 찌꺼기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찌꺼기조차 차차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시간의 힘에만 맡겨버리고 있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으면 스스로 잊기라도 해야 합니다. 가장 잊어버려야 할 일을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우리이지만 의지를 가지고 잊어버리기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용서를 청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지금껏 내가 남을 용서하는 일에만 마음을 썼지, 남이 나를 용서하는 일에 대해서는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소홀했다기보다 아예 외면하고 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서로 똑같은 무게를 지닌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용서를 청해야 할 일이 몇 배나 더 많을지 모르는데도, 저는 제 잘못에 대해 용서를 청하는 일은 등한시해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남의 잘못을 결코 잊지 않고 앙심을 품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 남이 나한테 잘못된 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도 남한테 잘못했을 터인데도 남이 나한테 잘못된 일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로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젠가 김수환 추기경께서 ‘용서하는 일보다 용서를 청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쓰신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대체로 남을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은 자주 갖는데,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로 잘못된 것이 없다고 자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용서받을 필요를 많이 느끼는 사람이 남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

참다운 용서는 상대방을 위안해주고 안심하게 해줍니다. 참된 용서에는 위안과 격려가 있습니다.

- 정호승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중에서

■ 마/을/으/초/워/는/글

나

살펴보면 나는

나의 아버지의 아들이고 / 나의 아들의 아버지고
나의 형의 동생이고 / 나의 동생의 형이고
나의 아내의 남편이고 / 나의 누이의 오빠고
나의 아저씨의 조카고 / 나의 조카의 아저씨고
나의 선생의 제자고 / 나의 나라의 납세자고
나의 마을의 예비군이고 / 나의 아들의 친구고
나의 적의 적이고 / 나의 의사의 환자고
나의 단골술집의 손님이고 / 나의 개의 주인이고
나의 집의 가장이다.

그렇다면 나는

아들이고 / 아버지고 / 동생이고 / 형이고 / 남편이고
조카고 / 아저씨고 / 제자고 / 선생이고
납세자고 / 예비군이고 / 친구고 / 적이고
환자고 / 손님이고 / 주인이고 / 가장이지
오직 하나뿐인 / 나는 아니다

과연 아무도 모르고 있는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 지금 여기 있는 / 나는 누구인가

- 김광규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한상의 정영선 김준호 곽혜자 김혜권 문복순 최현선 배근수 김금순
윤영원 이선희 이봉옥 김정애 곽다빈 전월수 초록가게

월정헌금:

김지현 김지은 이유선 방극숙 이은자 하정석 이명희 이광섭 김수연
이수정 배재경 송임희

감사헌금:

윤정덕 방문성 박혜경 이유일 김미희 최중훈 김금하 권미정 김필순
고은숙 김승식 박상희 임 영 정경례 하재두 이정은 한영덕 정복순
전성오 백묘현 김영한 이희균 오정숙 김명순 이봉옥 정환수 김재광
이재운 배부례 나오미1,2선교회 시므온 선교회 무명2

생일감사헌금:

배삼순 윤미경

녹색꿈 헌금:

문금석 무명1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 음 장 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노봉임	오승경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김영한	서정순
안디옥	임정자	임정자	정복순	서원금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김진경	최경미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최희영	조병주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박홍제	곽권희
시온	박효선	허정윤	김정애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권미정	이기분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이봉옥	유영남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김필순	구성실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임수연	박찬정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김시영	김희우
갈라디아	유경순	김명희	이현숙	박옥식
고린도	이영란	이영란	방극숙	배삼순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조항미	박혜경

■ 교/회/소/식 /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웨슬리 회심 기념일** : 오늘은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의 회심 2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교회가 감리교의 본정신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2. **임원회** : 예배 마친 후 5월 정기 임원회가 열립니다. 각 부서장은 보고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초청강연** :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강연회가 이번 주 26일(화) 저녁 7시 30분에 교회에서 열립니다. 강사는 일본의 '쓰고 버리는 시대를 생각하는 모임'을 이끌고 계시는 슌찌다 다카시 교수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의 양재성 목사입니다.
4. **신앙실천** : 보통 잠을 잘 자는 사람은 화를 잘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숙면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 식당 봉사 : 나사렛 속 (다음 주 : 갈라디아 속)

* 설거지 봉사 : 곽상준 최경미 (다음 주 : 방문성 이준하)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